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Langara 49 th Avenue에 위치해 있고 스카이 트레인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학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고 강의 실을 비롯해서 카페테리아와 스타벅스, 도서관 등 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방학 기간이라 학생 수가 적었지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재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수업	먼저 첫째 날에는 OT를 하게 되는데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바인더에 담아서 나눠주시고 통학을 위해 compass카드를 나눠 주십니다. 밴쿠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홈스테이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 홈스테이 가족들이 학교로 모여 또 홈스테이 OT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듣기 시험을 보고 분반을 하게 됩니다. 저의 반은 한국인 두 명, 타이완 한 명 그리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일본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대개 조용하고 학구열이 뛰어났고 착했습니다. 수업 중에 파트너랑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일본 학생들 중 K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선생님 Tanya는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셨고 때로는 매일 9시부터 수업을 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과제는 매일 내주셨지만 거의 가벼운 과제들이었고 다른 반에 비해 과제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준비를 위해서는 과제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가끔 프레젠테이션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조를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조 안에서 혼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첫 주에 먼저 벤쿠버 투어와 카약킹을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벤쿠버 투어는 하루 종일 벤쿠버에 있는 유명한 곳들을 다니는 것인데 더운 날에 걸터다니느라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각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정말 좋았습니다. 카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조금 팔이 아프긴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탈 수 있어서 좋았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엔 정말 재밌었습니다. 벤쿠버 아쿠아리움은 생각보다 작았고 벤쿠버 박물관은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미션 수행 주에 벤쿠버에 관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여서 좋았고 휘슬러는 아침 일찍 학교로 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인데 도착하면 chair lift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때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휘슬러는 생각보다 춥지 않았고 두꺼운 후드티 하나를 입었는데 낮이라 조금 덥기도 했습니다. 정상은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추울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해서 썬크림과 인공누액을 자주 가지고 다녔습니다. 현지 기후는 첫 주에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처럼 쌀쌀해서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했는데 둘째 주 부터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나면 다시 추워져서 감기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는 비가 거의 안 오고 정말 좋았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혹시나 길을 잃을 때 지나가는 분에게 물어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친절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가 많고 저녁이나 새벽에 지나가는 길에 붙잡고 구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는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이 거의 없고 굉장히 조용합니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의 홈스테이 경우는 교통이 편리했고 옆방에 이번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1층에는 홈스테이 학생들이 살았고 2층에서는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사셨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는 2층에서 먹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께서는 노부부셨고 두 분 다 필리핀 분이셨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자 독립을 해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끔 집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친근하셨고 식사를 할 때 많은 양을 주셔서 항상 굉장히 배가 불렀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에 가끔 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아졌습니다. 규칙 같은 것은 따로 없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집에 몇 시쯤에 들어올 예정인 지는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씩 해주셨습니다. 홈스테이 맘께서 저녁을 다 먹고 나면 싱크대에 올려놓는 것만 부탁하셨고 설거지는 해주셨습니다. 저녁은 항상 TV를 보면서 먹었고 홈스테이 맘과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평일 저녁과 주말 점심의 경우 외부 식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밴쿠버에서 일본 음식점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을 때는 스시를 먹으러 갔습니다. 롤 스시를 주로 먹을 수 있었고 크기도 하고 적당히 배가 부를 수 있는 양이라 좋았습니다. 스시 외에도 맛 집으로 알아보고 간 음식점들이 있는데 맛있는 경우도 있고 맛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홀튼에서는 점심을 먹고 배가 덜 차면 사먹기도 했고 중간 중간에 배고플 때 먹기 좋았던 곳이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통학은 집에서 나와서 3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어딘가에 갈 때면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는 자신이 내리는 정류장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지나는 정거장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zone1에 살았지만 15 명중에 다른 두 명이 밴쿠버 옆에 있는 버나비에 살았고 한 친구는 밴쿠버 아래에 있는 리치몬드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zone2라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compass card에 저와는 다르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zone2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리치몬드에 갈 일이 있으면 카드에 추가 충전을 해서 다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및 기타 생활비	30만원	
쇼핑	65만원	
교통비	5만원	
합계	2,711,2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밴쿠버에 가게 되면 홈스테이에서 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고 점심 때도 샌드위치를 많이 싸주시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먹을 컵라면을 미리 가져오는 것을 추천하고 가면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구글 맵 사용 방법도 미리 알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밴쿠버에서 사간 물건이 좀 있어서 갈 때보다 한국에 올 때 더 많은 짐을 싸야 했는데 이런 걸 염두하고 짐을 싸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드라이기의 경우는 110v를 쓰기 때문에 한국 드라이기를 가져 갈 경우 굉장히 바람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쌀쌀했고 한국의 여름과는 다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감기약은 상비약으로 꼭 가져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잠시 살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서 생활했던 일본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영어로 하게 되었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진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길기도 짧기도 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 녀보고 싶었고 첫 주에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길이 먼저 낯설지 않도록 익혔습니다. 키칠라노 비치, 잉글리쉬 베이, UBC, 그랜빌 아일랜드, 빅토리아, Grouse mountain, 밴쿠버 미술관,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등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밴쿠버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니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체력적으로 몸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조금씩 쉬어가면서 다녔고 정말 가는

곳마다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공통어인 영어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인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어로 먼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과 섞여서 영어로만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밴쿠버 생활을 즐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함께 다녀온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그 곳에서 만났던 홈스테이 가족들, 랑가라에서 만난 친구들도 모두 정말 좋았고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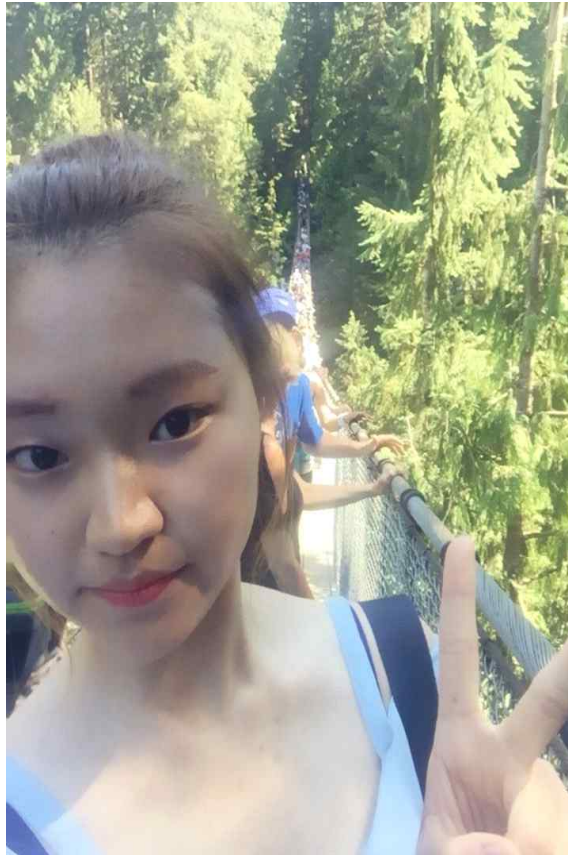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홈스테이 식구들



카약



Capilano Suspension Bridge



English Bay



Grouse Mountain



Victoria Island